

# 민주,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 국힘 “안전 합의하지 않았는데 상정” 반발 김승남 “여당 비협조 일관, 불가피한 조치” 신정훈 “국힘 주장, 너무 안이한 것” 비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이뤄진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근거해 진행됐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본회의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후 30일 이내 교섭단체 대표의원 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본회의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지난 10월 19일 농해수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인 12월 18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미국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밭 타 작물 재배면적 관리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눈에 재배하는 타 작물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낱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남 의

원은 “쌀 과잉 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며 “(본회의의 부의 요구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도 “18만원대로 쌀값이 올랐으니 좀 더 지켜보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은 타들어가는 농민 속도 모르는 너무 안이한 생각”이라며 “지난 9월 말 대대적인 시장격리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쌀값이 정체돼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작년보다 1만원 가량 떨어졌다. 재정당국 개입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쌀값 처방이 아닌 쌀값 폭락의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이 가결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논란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여당은 전체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해당 보도자료를 일부 농업 전문지 기자에게 배포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각본을 짜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농해수위 전문위원이 준비한 기자회견문 초안을 보좌진 텔레그램 방에 올린 것”이라며 “(언론에) 배포된 것이 아니라 유출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진수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전 처리를 놓고 정희용 의원(왼쪽)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승남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여야 국회의원 52명 여수 향일암 군부대 이전 촉구

### 김희재 “향일암의 역사 문화적 가치 훼손 안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여수)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52명과 함께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수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향일암은 ‘해를 향하는 암자’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해돋이 명소이며 특히 거북 모양의 지형과 거북 등껍질 무늬 암석들과 울창한 동백나무 숲이 조화돼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다”며 “하지만 향일암 거북머리에 군부대가 위치하면서 한해 200만명이 찾고 있는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해수관음성지 핵심 탐방 코스인 금오산 거북머리 순례길 차단으로 향일암 장전 1천300년 역사도 단절되고 있다”며 “국가적 문화재 인근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문화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군사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문화재청, 국방부 등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문화재 인근 군사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불필요하거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군사시설 이전에 함께 나서야 한다”며 “군사시설 이전 이후 향일암의 문화재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도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통일신라 원효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 향일암은 세계인이 찾는 4대 관음성지로 지난 12월 20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바 있다.

문화재청은 향일암이 “남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해돋이 경관과 하늘과 맞닿은 봉황산(금오산의 모산)의 지평선, 여수만 건너 남해 금산 등 수려한 해상경관을 볼 수 있는 곳이며 기암절벽 사이의 울창한 동백나무숲이 서로 조화를 이뤄 그 자체 경관도 빼어나다”며 “원효대사가 창건하고 수도하다가 관세음보살을 친견(親見)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사찰로 섬 지역 불교문화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고 명승 지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선우, 김미애, 김성원, 김성환, 김수홍, 김승남, 김영배, 김영주, 김영진, 김용민, 김원기, 김태년, 김희재,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성준, 박홍근, 배현진,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송인석,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양항자, 임태영, 윤건영, 윤관석,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병훈, 이성만, 이소영, 이용빈, 이원욱, 이원택, 이인선, 이형석, 임종성, 임호선, 장동혁, 정희용, 조승래, 조오섭, 주호영, 하여제, 허영, 홍성국, 홍정민(가나다 순) 등 여야 국회의원 52명이 연명했다. /김진수기자

# 주철현 “국동향 예타 대상 선정 환영”

### 향내 어선 안전 향상·관광객 편의 증진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은 28일 “여수 국동향 건설공사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전날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여수시 국동향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은 선정 결과에서 “국동향은 국내 최대 어항이면서도 전국 국가어항 115개소 중 접안시설이 가장 부족해 계류시설·연결교량 등 확충이 필요하다”며 “국동향의 항내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고 어항 이용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어업인과 관광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기재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지 선정에 회의적이었으나 국동향 기반 시설 부족의 절실함을 강조한 주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전향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남해권 국가 어항 접안시설 총조사 대비 부족 현황’을 보면 국동향은 1천 397m가 부족해 개선이 시급했다.

국동향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조사수행기관인 KDI와 조세연구소가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고 도로·건축·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정책성 평가를 실시한 후 3개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 ‘영암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

### 진실화해위 “국가 사과·피해 회복 조치 권고”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9차 위원회에서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10월 영암군 영암면과 덕진면에 거주하던 주민 22명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면 교동리, 덕진면 영보리 등에서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조사 결과, 1950년 10월 6일 영암군을 수복한 경찰은 영암면과 덕진면을 중심으로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을 부역자 가족과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암면 교동리 등지에서 총살했다.

특히 덕진면은 지리적 특성상 빨치산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던 관계로 경찰의 빨치산 토벌작전이 진행됐고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쟁 중이라도 국

가기관인 경찰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와 사법 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과거 국가기관에서 작성한 신원조사 관련 기록을 수집한 것은 또 다른 성과란 지적이다. 실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영암군 기록관에서 수집한 1960년대 영암군 공무원 임용 관련 기록을 확인했다.

공무원 임용 관련 기록 중 하나인 ‘신원조회회보서’에는 ▲한국전쟁 시기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사살된 경우 ▲한국전쟁 시기 좌익 활동을 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경우 ▲한국전쟁 시기 행방 불명된 경우 등에 대한 신원조사 내용이 기재돼 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영암군청의 협조를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자료 협조가 각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무고한 주민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인 만큼 희생자들에게 대한 국가의 사과와 함께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